Sumitomo, PO/PG사업 대폭 강화

Oxirane Japan 출자비율 60%로 상향조정 … 아시아시장 전개 본격화

Sumitomo Chemical이 PO(Propylene Oxide)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체제를 재편성할 방침이다.

Sumitomo는 미국 Lyondell Chemical과의 50대50 합작기업인 Oxirane Japan을 통해 PO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출자비율을 60%로 끌어올리기로 Lyondell과 합의했다.

현재 Chiba(千葉)공장에서 시운전중인 신 PO단산법 플랜트도 2-3년 이내에 Oxirane Japan에 이관할 예정이다. 기존설비에서 병산중인 SM(Styrene Monomer) 판매도 Sumitomo Chemical에서 Oxirane Japan으로 이관한다.

PG(Propylene Glycol)에 대해서도 Lyondell과의 협력을 통해 Oxirane Japan이 2004년 상반기를 목표로 1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방침이다.

Sumitomo Chemical과 Lyondell은 PO사업에서 장기간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Sumitomo는 PO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아시아·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해 사업을 재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Sumitomo와 Lyondell은 Oxirane Japan에 대해 PO 마케팅과 사업화 면에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Sumitomo Chemical은 2002년 12월 완공돼 2003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인 PO 20만톤 단산법 플랜트를 2-3년 이내에 Oxirane Japan에 이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PO 18만1000톤과 SM 42만5000톤 병설설비와 함께 제조공법이 다른 2개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게 돼 PO와 SM의 시장환경에 맞춰 기동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Sumitomo Chemical이 판매하던 병산법 SM은 2003년 4월초 Oxirane Japan에 이관된다.

PG사업도 Oxirane Japan이 Lyondell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 2004년 초 10만톤 설비를 건설하게 되는데, 투자액은 20억엔으로 예상하고 있다. Lyondell의 아시아·중동지역 판매망을 전면 활용하게 된다.

Sumitomo는 앞으로 PG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PO사업의 다각화, 수익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PO는 PG와 PPG(Polypropylene Glycol)의 기초원료로, PPG는 아시아 수요가 연평균 7-8%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Urethane 원료이다.

PG는 UPR(Unsaturated Polyester Resin), 식품첨가제, 화장품 습윤제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Chemical Journal 2003/05/07>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